한마루

2023 • 39호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한마루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2023년 vol.39

발행일 2024년 1월 25일
발행처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발행인 김현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

보호치료시설효광원
www.hyokwang.or.kr

전화 042.271.7053 팩스 042.271.5775

한마루에 실린 글이나 자료를 효광원의 동의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Contents

04 효광원 국장님 근속 30주년 축하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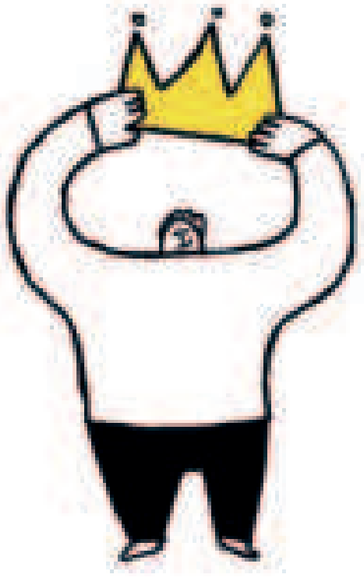
06 퇴소자의 글 김○윤
08 재원아동의 글 조○빈

10 2023년 기획사업
12 주요사업
13 집단상담

14 국토횡단 6기 소감문
16 청소년문화제(슈퍼스타임) 소감문
18 템플스테이 소감문
20 보호자 교육 소감문

21 운동장 개방, 전기충전 사용

22 후원금 내역
23 후원금 지정보고 및 자원봉사 안내



국장님 30주년 근속 축하드려요!

2023년 12월 27일 대흥동 성당에서
대전충남 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
종무미사에서 30주년 장기근속에 대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꽃피우기 위해 준비하셨던 지난 30년, 이제는 만개하여 활짝 피게 될 앞으로의 30년을 응원합니다.

황재성 교사

국장님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직 5년도 안 된 저로서는 국장님의 30년의 세월이 짐작되지 않으나 많은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효광원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30년을 지켜와주셨고 앞으로도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교사

따뜻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언제나 효광원을 지켜주신 김순자 국장님의 근속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의 사랑, 희생, 헌신이 지금의 효광원과 효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장님이 효광원과 함께 걸어오신 30년의 세월을 존경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효광원과 함께 할 국장님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상 교사

국장님께서 걸어오신 30년 저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효광원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힘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인생에서 제 2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직장의 상사로써 때로는 어머니같이 새겨주신 조언들 남은 저의 인생에서 잊지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3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변도현 교사

사랑하는 우리엄마 효광원에서의 30주년 장기근속 정말 축하드려요!
한 자리에서 수 십년을 지키고 서있는 소나무처럼, 30년이란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하고 회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닮고 싶어요. 어릴 때는 "엄마는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인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엄마이기도 하면서 사회에서의 김순자라는 역할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철 없었을 때의 투정이었어요. 경제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저희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버겁고 힘들 때도 있다는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효광원이라는 한 직장에서 간호사로 시작하여 사무국장의 자리까지 30년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힘들어도 가족들에게 티내지 않고 어떻게 속으로 견디며 버티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더 엄마의 어려움을 깨닫겠죠? 엄마에게 30주년 근속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자 자랑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축하 글에 저희 남매가 축하드리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 과거에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실 때, 나이가 어렸던 우리 두 남매까지 책임지고 가장의 역할을 하시며, 저희가 엇나가려고 했을 때 잡아주셨던 모습들 이제서야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굳은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희 남매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 최선을 다해 갚으며 효도하는 모습을 보일테니 조금은 내려놓고 쉴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35년을 아빠의 아내로, 34년을 딸의 엄마로, 30년을 아들의 엄마로, 30년을 한 직장의 일원으로써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거 감사하고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

아들·딸

가족의 소중함

writer. 김○윤 퇴소자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4일 효광원에 오게 된 김○윤입니다.
저는 6월 14일 최우진 판사님께 5, 6호 처분을 받고 처음으로 대전 효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적응하기 힘들고 긴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주시고 고민있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6개월을 효광원에서 잘 보낸거 같습니다.

효광원에서 지내면서 제 생활패턴도 바뀌게 되었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있었을때는 패스트푸드, 라면 등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효광원에서는 영양사 선생님께서 직접 영양가 있는 식단을 해주셔서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효광원에 사고를 쳐서 왔지만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아들처럼 대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른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효광원에 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효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저희가 잘못을 하고 말썽을 부려도 혼내시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경청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효광원에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본 받을 어른들도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효광원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배려와 존중을 배웠습니다. 사회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하고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제 마음대로 하였지만 이곳 효광원에서는 형, 동생, 친구들에게 양보도 하고 저보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생활하였습니다. 그건 효광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었으며 효광원 선생님들도 저희를 배려해주시고 존중해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처럼 제 행동을 변화하고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효광원에서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두드림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으며 심폐소생술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담임과의 추억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한 프로그램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생님들과 같이 영화도 보고 볼링장도 가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효광원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맨날 보던 부모님을 못 뵙게 되어서 정말 저한테 가족은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효광원에서 면회를 하긴 했지만 한달에 한 번 있는 면회라 더욱더 저한테는 가족이 보고싶고 사회에서는 사고치지 않고 잘 지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퇴소 이후에도 효광원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고 다시는 사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를 믿어주신 효광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제 담임선생님께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잊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writer. 조○빈 재원아동

안녕 효우리 심리정서반 세우미 조○빈입니다.
저는 2022년 4월 수원가정법원에 전에 계셨던 박미화 판사님께 5, 6호 처분을 받고 이곳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효광원에 오기 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로부터 이곳이 무서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5, 6호 처분을 내려주신 판사님을 참 많이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효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효광원에 도착해서 신부님, 국장님, 여러 선생님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선생님들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색하지 않고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 점차 효광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칙위반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효우리에게 강압적인 태도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징계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 짜증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6호라는 처분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듯이 살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이셨던 임종송 선생님께서는 제가 놓친 정신줄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용기능사 공부를 가르쳐 주시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의 노력으로 다시 정신을 다잡고 이용기능사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세우미라는 성장단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정상적으로 퇴소를 할 수 있었고 퇴소 이후에는 학교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6호 시설에 입소했던 친구가 퇴소를 하게 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어울리며 재범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 다시 위탁이 되었고 2023년 7월 다시 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6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당연히 이번에는 소년원에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저를 다시 효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효광원의 신부님, 국장님, 선생님들도 감사하게도 저를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저에게 효광원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과 다르게 열심히 생활하고 행동에 신중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판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재입소 후에는 열심히 생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효광원의 최고 성장단계인 이끄미까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효광원 생활을 하면서 악기(기타, 전자기타)를 배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슈퍼스타일에서 공연무대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수녀님께 못하겠다고 찡찡거렸지만 할 수 있다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수녀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많은 이벤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효광원 생활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었고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충분하게 가진 저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따뜻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효광원의 선생님들과 판사님께 항상 감사하며 더 열심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기획사업

01

사업명 **효광원 보호자교육**

지원기관 효광원 자체

사업목적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인 보호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의 역할 회복과 재구조화를 통해 아동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

사업기간 2023년 1월-12월

사업대상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보호 청소년과 보호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 (보호 청소년과 보호자)

02

사업명 **방학 레포츠데이**

지원기관 배재에코브릿지협동조합

사업목적 보호소년의 레포츠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와 새로운 경험 습득.

사업기간 방학 프로그램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보호소년

2023년도 기획사업입니다.

03

사업명 자연 속 쓰담 달리기 활동 프로그램

지원기관 한끼 100원 나눔 운동본부

사업목적 보호소년들의 환경정화 활동을 통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아동들의 건강증진, 스트레스 해소, 자긍심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함.

사업기간 2023년 1월-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위탁 보호소년

04

사업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지원기관 청주지방법원, 한국 불교문화사업단

사업목적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보호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자기 내면을 순화· 완성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재비행을 예방하고, 이후 보호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바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

사업기간 연중 2-3회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주요사업

춘계·추계 체육대회

효광원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유도하고 동료들간 협동심 배양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도모. 이를 통해 사회적응 능력 훈련과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함.

연간 2회 실시

지역사회 대민지원 자원봉사 활동

효광원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소년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정화를 함.

월 1회 실시

상위 성장단계 외출 프로그램

보호소년이 정해진 비용과 시간 안에서 계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책임과 약속을 배우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증진하며 선생님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도움.

2023년 1월-12월

등산 프로그램

보호소년과 선생님들과 함께 산의 풍경을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긍정적 유대감 향상 및 성취감을 형성하도록 도움.

방학프로그램 기간 1-2, 7-8

집단상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두드림(Do Dream)

꿈·드림,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연간 3회 실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 'HI프로그램'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진로고민을 해결하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취업 지원이 되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연간 2회 실시

금연중독 치료집단

흡연의 경각심을 일깨워 호기심과 욕구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 욕구를 저하시켜 금연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고자 함. 금연을 성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분기별 1회 실시

음악·크로스핏 집단치료 프로그램

음악적·체육적 환경에서 제시되는 과제를 통해 사회규칙을 학습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그룹원과 협동하며 과제를 완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과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연간 8회 실시

훈훈한 '톡톡'(talk talk)

국토횡단 6기

2023년 10월 11일~13일 국토횡단 6기
"독도에서 백령도까지 가온길을 찾아서" 프로그램 진행

인제군청에서 춘천지방법원까지 약 70km 코스를 아동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결여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자세를 익히는 시간이었다.

국토횡단 6기 소감문

Q 이번 국토횡단을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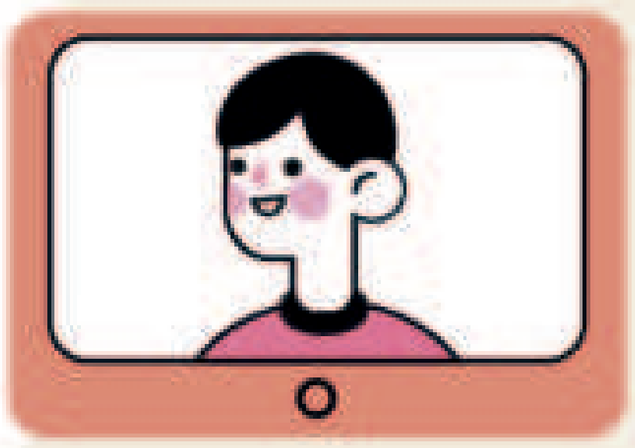
저는 이번 상반기 하반기 국토횡단에 다 참여하였습니다.
하지 못할것만 같던 700km를 완주하니 뿌듯하고
제가 더욱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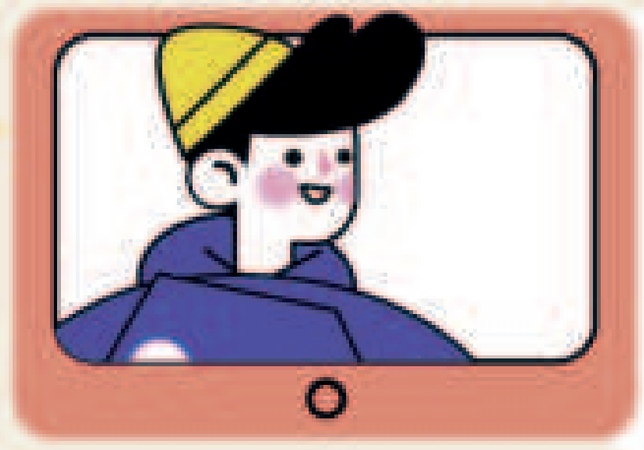
최○니

Q 국토횡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를 정한다면 무엇일까요?

버리는 돌입니다. 프로그램 시간에 돌멩이에 나쁜 습관을 적고 흐르는 강물에 버린다고 들었을 땐 조금 우스웠습니다. 나쁜 습관을 적은 돌멩이를 다음날 가방에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나의 나쁜 습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흐르는 강물에 돌멩이를 던질 때 나쁜 습관이 사라지는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김○현





Q 국토횡단에 참여한 소감을 멋지게 적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거에 정말 큰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구나 느꼈으며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되는구나 라는 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우

훈훈한 '톡톡'(talk talk)

2023년 11월 1일 대전가정법원에서 주관하는
소년보호기관 청소년문화제 슈퍼스타일 프로그램

보호소년들이 직접 문화공연을 준비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보호소년에게 열정,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고 보호소년의 정서순화와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슈퍼스타일 태권도 참가후

저는 이번 슈퍼스타일 태권도에 참여하였습니다. 낯가림도 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다고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본 공연을 마친 이후 많은 박수 소리와 함성이 있었으며 저는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과 행사를 주관해주신 법원 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조○빈

슈퍼스타일 댄스 참가후

슈퍼스타일 댄스 공연에 참가하면서 저는 단합을 배웠습니다.
같이 준비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게 부끄러웠지만 많은 박수와 함성 소리에 힘을 내고 무대를 잘 마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준비하면서 도와주신 효광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준

슈퍼스타일 밴드 공연 참가후

슈퍼스타일 밴드 공연을 효광원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너무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효광원에서 연습한 거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 앞에서 무대를 준비하니 긴장이 되었지만,
선생님들께서 긴장하지 말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시니 긴장은 금세 사라지고
공연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 효광원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기쁘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선생님들과 같이 무대를 준비한 형, 동생,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람

템플스테이

2023년 9월 14일~15일
청주지방법원과 법주사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진행

청주지방법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지원으로 재원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진행하였다. 사찰의 문화를 배우며 재원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자기 내면의 순화 및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템플스테이 활동을 통하여 재비행을 예방하고 퇴소 이후 아동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 **소감문**

Q 이번 템플스테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A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법을 가르쳐 주는 곳

A 성찰, 성장, 감동입니다.

Q 템플스테이를 마친 소감

A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법주사 내부를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건물들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 심호흡 하는법을 가르쳐주셨는데,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서 신기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3~5분 동안 명상을 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잡 생각이 없어져서 좋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새로운 추억을 쌓은거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임○건

A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저친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회하고 나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법주사를 처음 와봤는데 사찰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딱딱하고 어두울 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스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밝으셨으며 배울 점도 너무 많아서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원

보호자 교육 소감문

김○윤 보호자

안녕하세요. 이번 보호자교육 참여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교육은 아이 때문에 여러번 받았어서 다 똑같을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를 하루종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호자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제가 혹시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호자교육을 받으러 왔지만 효광원에 계신 선생님들의 차분한 설명과 함께 편하게 진행해주셔서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 교육이 다 똑같을거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제 생각이 짧았구나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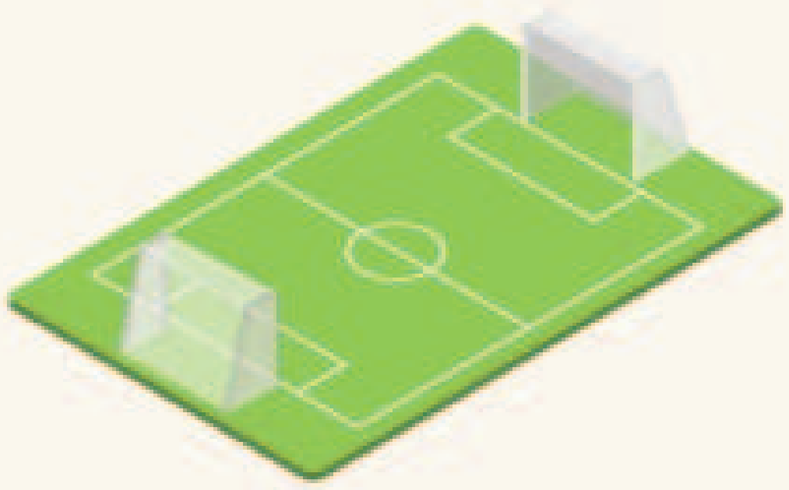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영상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영상보고 아이들 소감을 듣는데 펑펑 울고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수지에니어그램을 아이와 함께하면서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되었으며 제 자신도 모르는 저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해 다시한번 보호자교육에 오길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해주셨던 선생님들도 설명을 즐겁게 해주시니 시간 가는줄 모르면서 보호자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항상 아이 아빠보단 제가 더 아이를 케어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수지에니어그램을 통해 아이에게 아빠는 큰 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저를 반성하고 아이와 아이 아빠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교육해주신 선생님께서 교육 끝날때쯤 "울어도 괜찮습니다. 울고 싶을때는 울어도 되어요."라고 말씀해주신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엄마는 울지 않고 강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교육을 통해 너무 무겁고 버거웠던 짐을 내려놓는 듯 하였으며 보호자교육을 받는 동안 틈틈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아이들을 긴 시간 품 안에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구나 느낄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아이들이 부모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눈물을 흘리시는 보호자분도 계셨습니다.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은 사라지고 보호자교육이 끝나는게 서운할 정도로 시간 가는줄 모르고 뜻 깊고 즐겁게 교육 받았습니다. 또 한번 교육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아이와 달려가겠습니다. 보호자교육으로 인해 부부 사이도 한층 더 신뢰와 믿음이 생길 수 있어서 더 감사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보호자 교육이 저희 가족에게는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원원 시설 안내

운동장 개방



개방시간

토요일 **15:00-17:00**
공휴일 **09:00-17:00**

준수사항

1. 오토바이, 자전거 ,
   인라인 스케이트 출입금지
2. 애완견 출입금지
3. 화기 사용금지
4.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절대금지
5. 시설물 파손시 변상 조치함.

시설 사용시 시설장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2-271-7053**

전기충전 시설

개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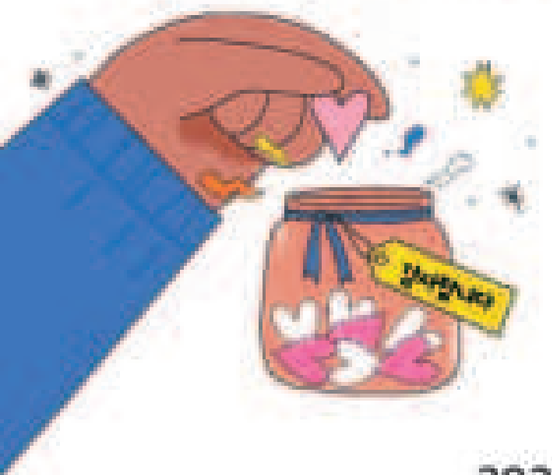
월요일-토요일 **09:00-19:00**
공휴일 **불가**

준수사항

1. 자동차 전원 차단
2. 충전시 시설내 배회 금지
3. 화기 사용금지
4.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절대금지
5. 시설물 파손시 변상 조치함
6. 시설 내 아동과 대화 금지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7월-12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예쁜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후원금 내역

가마치통닭, 강재언, 고영숙, 국민은행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규암성당, 김대희, 김도윤, 김미옥, 김민석, 김성희, 김양순, 김왕수, 김이제루카, 김현, 김현수, 김현주, 대전존타4클럽, 대천해수욕장성당, 박미라, 박현숙, 백송이, 변해영, 삽교성당, 서충삼, 성민태, 세종성프란치스코성당, 손병재, 손연경, 송경숙, 신평성당, 신혜영, 심재광, 천안쌍용동성당, 안상길, 오세정, 윤경희, 이강호, 이룸스틸, 이순덕, 이원진, 이협수, 이형석, 장윤정, 정규순, 정연실, 정영순, 조순옥, 조현분, ㈜플리닌, 주혜진, 진해해사성당, 천안구룡동성당, 최명자, 최영서, 최재환, 최종익, 코밴아이러브피플, 한정현주교님, 황경옥

2023년도 하반기 후원물품 내역

(사)한국자원봉사실천협회, (재)청소년행복재단, 강원도신자, 계룡건설, 광주가정법원, 김수정, 김순자, 김종호, 대덕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동성당,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청, 대전교구평신도협의회,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아동복지협회, 동구청, 떡미당, 무기명, 문창동성당, 부산신자, 빈경희, 산내동주민센터, 상인축산주식회사, 서울가정법원, 성심당, 성심원, 성우보육원, 송촌동성당신자, 신용보증기금충청영업본부, 신협, 오리온재단, 우리말회, 울산가정법원, 월평동성당, 인천가정법원, 장도영, 전정호, 정류장약국, 조은희, ㈜일신오토클레이브, ㈜티엔알컴퍼니, ㈜홍일식품, 천양원, 내동성당, 서울대교구평신도협의회, 최영철, 최창업, 축구사랑나눔재단, 춘천지방법원, 킴벨피부과병원, 투썸남대전IC, 하나로마트 산내농협본점, 한밭축산, 합덕선교사, 휴스템코리아,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자원봉사자

음악: 김안진

학습지도: 박해숙, 양순일, 엄상용, 이세린, 이진희, 최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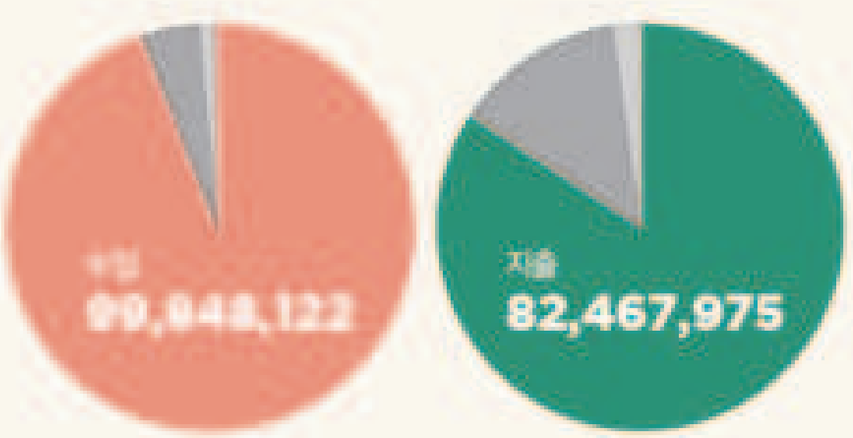
겨자씨 공부방: 김규연, 김다민, 박하빈, 이상원, 정수원, 한진규

진로탐색프로그램 봉사자: 권신영, 김재일, 박상희, 박송이, 박지민, 윤태균, 이현희, 이형민

이용 자원봉사자: 강선희, 김영화, 문재식, 박선아, 박혜영, 손서윤, 송미니, 송민아, 오중근, 육용례, 윤중현, 이미경, 이영순, 이영진, 이주영, 임재명, 황종섭

후원금 **지정보고**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수입 총 **99,848,122**원

구분	내용	금액
후원금 수입	지정 후원금	24,456,000
	비지정 후원금	57,385,072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18,005,860
잡수입	기타예금 이자수입	1,190

지출 총 **82,467,975**원

구분	내용		금액
사무비	기타운영비	기타 후생경비	200,000
		제세공과금	4,191,328
	운영비	회의비·여비	980,090
		수용수수료	2,949,170
		공공요금	3,699,720
		차량비	508,000
		기타운영비	1,514,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149,000
		시설장비 유지비	3,229,280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피복비	1,009,880
		의료비	2,315,930
		수용기관경비	750,140
		직업재활비	1,247,930
		특별급식비	2,375,560
		연료비	500,000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37,677,602
		도서구입	466,200
		교육재활 사업비	195,900
잡지출	반환금		17,508,245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무통장입금

농협
453046-55-002444
(효광원)

전화문의 042-271-7053

내원접수 본 원에 방문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결연
- 청소년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청소년이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영위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아 퇴소 후 사회복귀 및 적응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자나 연고자가 없는 청소년에게 재원기간동안 면회 신청, 물품 후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노력봉사: 시설청소, 식사(간식)제공, 식당지원 봉사, 생일자행사지원 등
학습봉사: 교과목 및 특기 적성 교육
(기초학습, 검정고시, 대입수학능력시험 준비)
전문분야 봉사: 축구, 헬스, 농구, 음악, 미술, 미용,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체험 봉사: 문화 체험 초청

찾아오시는 길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버스이용 108번, 501번, 511번, 512번, 513번, 574번, 620번
낭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하차

자차이용 남대전 톨게이트 통과 후 5분 이내 도착

택시이용 대전역: 효광원 약 7.3km
대전복합터미널: 효광원 약 9.9km

보호치료시설 효광원